

김주찬 4안타 폭발... 잠자던 호랑이 타선을 깨우다

프로야구 시범경기 KIA, 한화에 2연승

다이아몬드에 봄이 찾아왔다. 2013 프로야구 시범경기가 지난 9일 시작했다. KIA 선동열 감독과 한화 김응용 감독의 '사제 맞대결'이 전개된 무등경기장에는 주말 1만2000여명의 관중이 찾아 다시 돌아온 야구의 봄을 즐겼다.

오키나와 리그(1부1패)에 이어 진행된 두 번째 대결에서는 제2 선동열 감독이 웃었다. 이를 연속 KIA의 타선이 폭발했다. 9일 최희섭의 투런포를 포함, 장단 18안타를 몰아치며 13-3 대승을 거뒀던 KIA는 10일에도 하위타순에서 나온 홈런 두방으로 4-1 승리를 기록했다.

3회말 9번 타자 박기남의 홈런이 공격의 시작을 알렸다.

선두타자 박기남이 한화 선발 이브랜드의 140km의 직구를 잡아당겨 0-0의 균형을 깬다. 김주찬이 투수 앞 땅볼로 출루하면서 무사 1루, 김선빈의 타구가 1루수 킴을 넘기면서 무사 1-3루가 됐다. 이범호의 타구가 유격수앞으로 향하면서 병살타가 됐지만 3루 주자 김주찬이 홈을 밟으면서 2-0이 됐다.

4회 초 선발 소사가 선두타자 이범호를 중견안타로 출루시킨 뒤 김태균의 적시타로 1점을 내줬지만, KIA는 이어진 공격에서 7번 강귀태의 볼넷과 8번 차일목의 2루타로 3-1을 만들었다. 7회말에는 차일목이 선두타자 홈런을 날리며 4-1까지 점수를 벌였다.

소사가 사사구없이 3피안타 5탈삼진 1실점

■ KIA 시범경기 한화전 홈런포 폭발



9일 최희섭 투런... 장단 18안타 몰아치며 13-3 대승

10일 홈런 2방... 소사 선발·앤서니 마무리 4-1 승

으로 5회를 책임진 뒤 KIA의 불펜이 가동됐다.

유동훈이 삼자범퇴로 6회를 막았고, 박지훈은 볼넷을 허용하기는 했지만 안타없이 7회를 종료했다. 8회에는 좌완 진해수가 마운드에 올랐다. 한승택의 헛스윙 삼진에 이어 오선진의 좌전안타가 나오면서 1사 1루. 1번 조정원의 헛스윙 삼진으로 투 아웃을 채운 뒤 앤서니의 마무리 테스트가 진행됐다.

앤서니는 이어상을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8회를 끝냈고, 9회에도 깔끔한 피칭을 이어갔다. 9회 첫 타자 전현태를 헛스윙 삼진으로 요리한 뒤 최진행의 스트라이크 낮아웃 그리고 이대수의 투수 앞 땅볼로 아웃카운트 3개를 잡아내며 시범경기 2연승을 확정지었다.

시범경기 개막과 함께 FA 이적생 김주찬의 효과가 폭격히 발휘됐다. 김주찬은 WBC 복귀 후 컨디션 조절 중인 이용규를 대신해

톱타자로 나서 두 경기에서 7타수 4안타, 0.571의 타율로 1타점과 3개의 득점을 기록했다. 9일에는 빠른 발을 앞세워 3루타와 2루타를 연달아 때려내면서 공격의 물꼬를 텄다.

김주찬은 "광주에서의 느낌이 좋다. 부상만 안다면 많이 나와서 많이 뛰며 좋은 역할을 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홈에서 LG를 만난 삼성은 주말 2연전에서 1부1패를 기록했다. 9일 4-4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던 삼성은 10일 경기에서는 8회 대거 6점집을 하며 6-9패를 기록했다. 사직에서 벌어진 롯데와 SK의 대결은 1승1패로 끝났다. 9일 2-1로 신승을 거뒀던 롯데는 두 번째 경기에서는 3-6으로 패를 기록했다. 9일 넥센에 1-6 패를 당했던 NC는 10일 7-4로 경기를 마무리 하며 홈팬들에게 첫승을 선물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10일 광주 무등야구장에서 열린 2013 프로야구 시범경기 KIA타이거즈 - 한화이글스 경기에서 3회 KIA 김주찬이 안타를 치고 있다. FA 이적생 김주찬은 이틀간 3루타·2루타 포함 7타수 4안타로 KIA 공격의 물꼬를 텄다. <KIA타이거즈 제공>

① 시범경기 말말말

▲어~앤서니=KIA 선동열 감독, 외국인 투수 앤서니가 '안녕하십니까?'라고 인사를 하자 다정한 목소리로, 올 시즌 마무리로 낙점받은 앤서니는 시범경기에서부터 실전처럼 기용될 예정이다.

▲방랑이를 들고 있는 줄도 몰랐어요=KIA의 신인 외야수 박찬, 9일 프로무대 첫 타석에 들어섰는데 너무 긴장해서 공도 보이지 않더라며.

▲공 던질 생각만 하고 있었죠=9일 처음으로 팬들 앞에서 공을 던졌던 신인 투수 손동욱, 공 던질 생각만 하다가 베이스 커

이종범 한화 코치 "양현종 공은 내가 쳐야하는데..."

버를 만들어가서 10일 특별 훈련을 했다며.

▲마음대로 안되네=김응용 한화 감독, 감독으로 복귀해 첫 경기를 치른 소감 이 어떨냐는 질문을 받아, 한화는 9일 KIA와의 시범경기 개막전에서 3-13으로 대패를 당했다.

▲어제 볼은 내가 타석에 서서 쳐야겠다=한화 이종범 코치가 9일 KIA 선발 투 등관한 양현종을 보고, 전날 양현종의 볼이 좋아서 한화 타자들이 알고도 못 치더라면서, 양현종은 9일 5이닝 동안 4피안타 1사사구 3탈삼진 무실점의 호투를

선보였다.

▲너 견제 못한다고 했지=한화 이종범 코치, 양현종이 전날 한화 2번 타자로 나왔던 이학준의 주루가 좋았다고 하자, 양현종이 견제가 약하다고 주루할 때 리드를 많이 하라고 했다면서.

▲왜 자신있게 말을 못해=KIA 김종국 코치, 양현종이 대신바로 함께했던 이종범 코치와 경직된 자세로 대화를 나누고 있어, 상대팀 코치에게 왜 기가 죽어있냐고 웃으며.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 U대회 대학생 홍보대사 '유니프렌즈' 모집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광주 U대회)를 알릴 제4기 대학생 홍보대사 '유니프렌즈'를 모집한다.

광주U대회 조직위원회가 오는 4월 26일 까지 세계 대학생과 네트워크를 형성해 대회를 알릴 대학생 홍보대사를 선발한다.

그동안 연 100명씩 모집했던 것과 달리 제 4기 홍보대사는 300여개 대학생 50명씩 총 1만5000명으로 구성된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 휴학생 포함 1~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개인은 물론 팀을 구성해 지원할 수 있다.

서류전형을 통해 자기소개서, 활동계획, 경력 등을 심사하며 대학교에서 추천하는

대학생이나 기업에서 홍보대사로 활동중인 대학생은 별도 절차없이 우선 선발한다.

활동기간은 오는 5월부터 2015년 대회 종료시까지이며 전국대학 캠퍼스 투어, 학내 홍보 이벤트, 뉴미디어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 등의 활동을 한다. 선발된 이들에게는 홍보대사 상징물 및 소정의 활동비가 주어지고, 활동우수자에게는 조직위원회 공식행사 참가 기회가 부여된다.

접수는 광주 U대회 홈페이지(www.gwangju2015.kr)에서 이루어지며, 자세한 사항은 조직위 자원봉사 2팀(062-616-365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전국 소년체전 야구

초등부 광주 대표 선발전

제42회 전국 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할 초등부 광주 야구대표 선발전이 열린다.

11일부터 15일까지 분당 리틀구장에서 전국소년체전 초등학교 야구 예선대회가 열린다. 7개팀이 참여한 이번 대회는 리그전으로 진행되며 A·B조 1·2위 팀의 준결승에 이어, 준결승 승자들이 대표자리를 놓고 결승을 치르게 된다. 지난해 소년체전에서는 수창초 야구부가 초등부 대표로 출전해 무등중과 함께 동반 우승을 차지했었다. 이번 소년체전은 5월 25~28일 나흘간 대구에서 열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 출발 왕복 셔틀 운행 안내

광주 - 완도 - 제주항 - 완도 - 광주

셔틀버스출발 : 06:00 광천 터미널 내
셔틀버스도착 : 완도 버스터미널까지만 운행 됨
패 속 선 : 완도 출발 09:00~10:40
제주 출발 17:50~19:30

소 요 시 간 : 1시간 40분

패속선+셔틀버스요금

편도 37,000원(한만세포함요금, 추가요금 없음)

체크 : 단체는 문의 후 확정, 일-제, 제-완 편도는 문의바람

광주 - 목포 - 제주항 - 목포 - 광주

셔틀버스출발 : 06:40분 광천동 터미널 건너편 e-편한세상 앞
셔틀버스도착 : 목포 국제항 여객선 터미널 앞
패 속 선 : 목포 출발 09:00~13:20
제주 출발 17:00~21:20

소 요 시 간 : 4시간 20분

크루즈+셔틀버스요금

편도 30,000원(한만세포함요금, 추가요금 없음)

체크 : 단체 불가, 합인용 및 합인 대상자들 문의바람

첫날부터 짝~찬 신나는 제주 여행
광주 출도착 제주도 2박 3일 매일 출발

완도 쾌속선 169,000원~
목포 크루즈 155,000원~

- 1일자 : 도두봉 트래킹, 수목원테마파크-트리아트, 얼음박물관, 5D영상관
- 2일자 : 오설록, 코끼리랜드, 카멜리아힐 동백정원, 석부자테마파크, 올레7코스, 새연교+새섬, 쇠소깍
- 3일자 : 교래리 삼나무숲길, 조랑말 승마체험, 제주 허브동산, 에코랜드 또는 선녀와 나무꾼, 해녀촌, 친환경농수산물매장

포함 사항:광주-완도, 목포 왕복셔틀버스(신착신왕복선)비료, TAX, 일정내에 모든 관광지 식사(완도-중식3회,목포-중식2회,목포-중식2회,목포-중식2회) 5~6인실

불포함사항:기타드림(1인 10,000원)자유식당(완도)터미널-완도항 승송
현지 직불관광: 산방산 유람선(17,500원)공광리안방사 등(15,000원) 추가비용:금요일출발 2만원, 토요일출발 1만원, 2인실이용시 3만원